Mobilty at a glance

meritz 메리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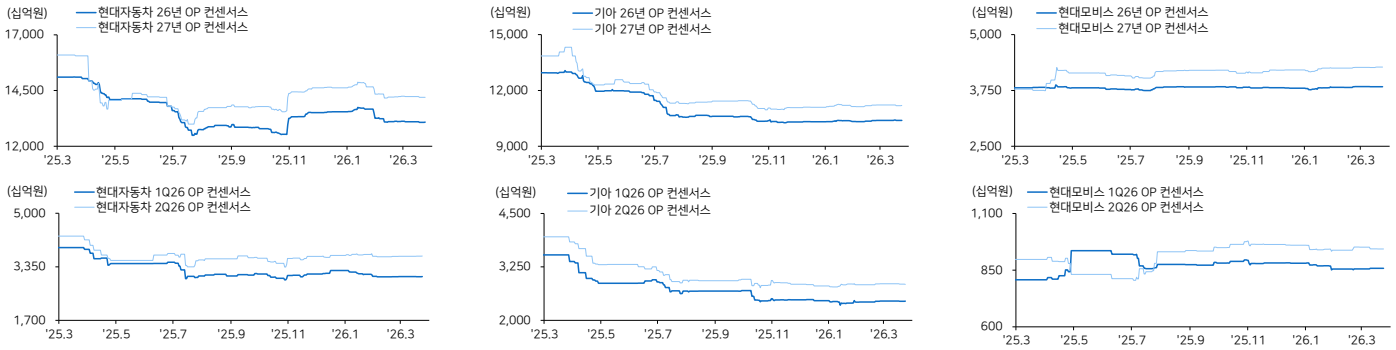
2026.3.31 (화)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joonsung.kim@meritz.co.kr
RA 배현서 hyeonseo.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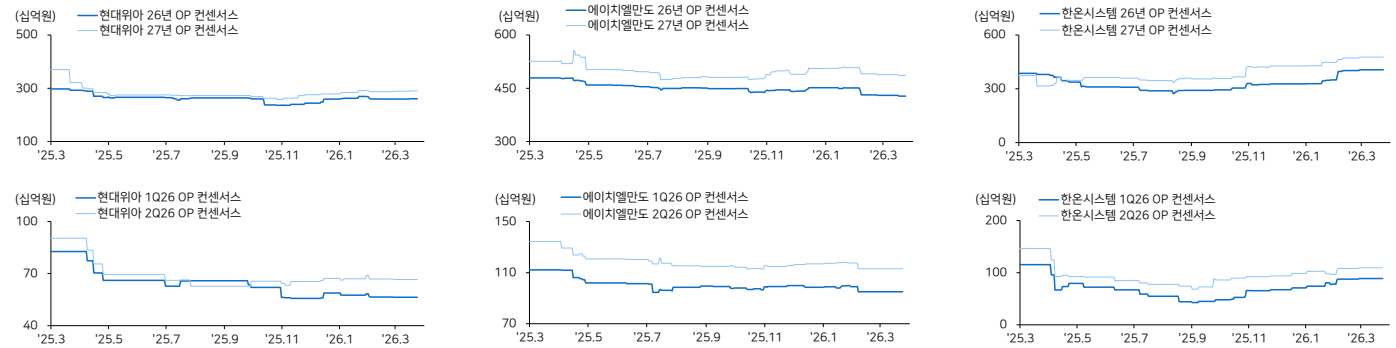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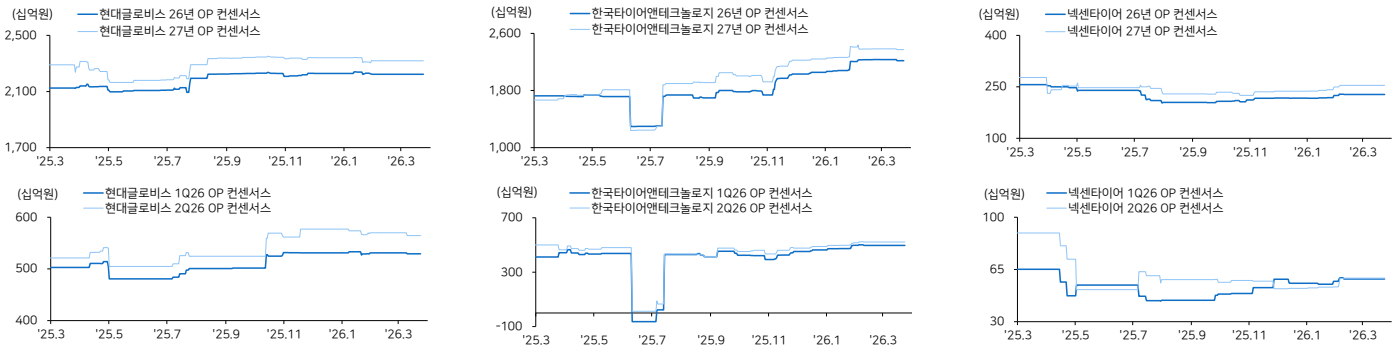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현대글로비스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국내외 주요 뉴스

美 '안보 로보틱스법' 발의…韓 로봇 기업 '기회' (한스경제)

최근 미 상원의원들이 발의한 '미국 안보 로보틱스 법안'은 특정 국가에서 제조된 로봇의 공공 조달과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 규제 대상은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이는 로봇을 반도체와 전기차에 이어 전략 산업으로 편입시키는 흐름

https://han.gl/nCnUD

현대차·기아, 뉴욕오토쇼에 로봇까지 총출동… 품질 논란 조기진화 (디지털타임스)

현대차·기아, 내달 3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2026 뉴욕 오토쇼' 참가. BD의 스팟과 아틀라스까지 등장시키며, 신차 전시뿐 아니라 체험형 콘텐츠와 미래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최근 불거진 품질 논란을 뒤집고 현지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전략

https://han.gl/JfPkq

Another Tesla Cybercab production leader leaves as exodus continues (Electrek)

Tesla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캡 조립 및 라인 램프업을 총괄했던 제조 운영 리더 마크 럽키가 Tesla를 떠난다고 발표. 이로써 사이버캡 생산에 직접 관여했던 고위급 리더가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명이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음

https://han.gl/TjtEC

GM idles 1,300 workers as it pauses EV output in Detroit — again — as demand wanes (Automotive News)

GM, 수요 감소로 인해 디트로이트의 전기차 전용 공장 Factory Zero의 가동을 다시 한번 중단함. 이는 대규모 해고와 단일 교대 근무 축소가 시행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내려진 조치. 1,300명의 공장 근로자는 3/16부로 임시 해고, 4/13 복귀 예정

https://han.gl/300c8

中 자동차, '가격→기술' 경쟁 전환…1위 BYD 흔들린다 (뉴스1)

한국자동차연구원의 'BYD 약세가 시사하는 中 자동차 경쟁 구도 변화' 보고서, BYD의 부진이 단순한 수요 둔화가 아닌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 가격 인하 경쟁이 격화되는 내권(內卷) 현상과 함께 중국 내 정책 변화 영향이 본격화됐다는 설명

https://han.gl/eVkDP

현대차 RAI 연구소, 바퀴 달린 로봇 '로드러너' 공개 (글로벌이코노믹)

현대차그룹 RAI Institute, 이족 바퀴형 로봇 '로드러너' 공개. 이번 공개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제어 정책을 실제 기체에 그대로 이식해 바로 작동시키는 이른바 '제로샷 전이(zero-shot transfer)'가 됐다는 것

https://han.gl/Gm3sK

87만 원에 자율주행 쓴다?…테슬라 FSD '탈옥' 를 논란 (시사오늘)

국내에서 일부 모델에 사용할 수 있었던 Tesla FSD의 국가별 제한을 우회하는 장치와 제작용 무료 소스 코드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 다만 차량 내부 통신망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인 만큼 제작사 대응과 법적 책임 등이 문제로 제기된 상황

https://han.gl/X10In

테슬라, 日 서비스 센터 '2배' 확장… "판매 급증에 애프터서비스 충력전" (글로벌이코노믹)

Tesla, 올해 일본 내 직영 서비스 센터 수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 이러한 공격적인 확장의 이유는 최근 일본 내 판매 실적이 유례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2025년 Tesla의 일본 내 판매량은 약 10,600대로, 전년 대비 90% 폭증

https://han.gl/jU572

르노코리아 CEO, '넥스트 기어' 새 비전 공개…"실행력 강화" (뉴시스)

니콜라 르노코리아 사장, 사업 비전으로 '넥스트 기어' 제시. 그룹 차원의 '퓨처레디' 전략을 국내에서 실행력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르노그룹은 지난달 퓨처레디를 중장기 비전으로 발표. 앞으로 전동화와 차량 라인업 확장에 나서겠다는 뜻

https://han.gl/TDmdn

BYD reportedly targets higher 2026 oversees sales of 1.5 million units (CnEVPost)

BYD, 국내 시장의 약세를 만회하기 위해 2026년 해외 판매 목표를 150만 대로 상향 조정. BYD 경영진은 당일 열린 애널리스트 브리핑에서 해당 목표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 새로운 수치는 BYD가 올해 초 발표했던 목표보다 15% 높은 수준

https://han.gl/EPJk4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